

성인 애착의 안정성 및 초기 생도생활 적응과의 관계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는 성인 애착의 안정성 및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6개월에 걸쳐 탐색한 것이다. 145명의 생도가 6개월 간격으로 시행된 두 번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에는 관계질문지, 성인 애착 척도, 생도생활적응검사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전 생도의 63%가 6개월에 걸쳐 동일한 애착 유형을 나타냈으며 성인 애착 요인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의 자신감 요인은 생도생활적응검사의 모든 요인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두 번의 측정에서 안정된 애착 유형의 집단은 불안정한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응 점수를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성인 애착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인 애착 안정성, 생도 생활 적응

[†] 교신저자 : 김 광 은,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3호, 공군사관학교
전화 : 043-290-5043, E-Mail : 9pine@hanmail.net

애착이론(Bowlby, 1988)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경험은 이후 성인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표상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인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애착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Bowlby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한 개인이 발달해가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관계 및 생활상의 변화를 통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기본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절의 속성과 자신의 애착 틀 안에 새로운 경험을 흡수시키는 동화의 양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많은 연구자들(Buelow, McClain, & McIntosh, 1996; Davila, Burge, & Hammen, 1997; Davila & Cobb, 2004; Fraley & Brumbach, 2004; Hazan & Shaver, 1987; Lopez & Gormley, 2002; Sharfe & Bartholomew, 1994; Zhang & Labouvie-Vief, 2004)은 애착 패턴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는 상당한 가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raley(2002)는 발달적 관점에서 생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낯선 상황에 대한 애착 반응 검사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 이들의 애착 반응을 종단적으로 검증한 27개의 연구를 개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재검증이 시작된 연령은 1.5세에서 19세까지 다양했는데 그 결과 1세에서 1.5세는 .32, 4세에서는 .35, 6세는 .67, 19세는 .27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메타 분석한 결과 생후 1년 시기의 애착 반응과 19세 이전 반응과의 평균적인 상관계수를 .39로 추정하였다.

성인 애착의 안정성과 가변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제시하

고 있는데 그 하나는 애착 유형을 범주화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유형의 동일성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착 유형의 전형성을 연속적인 선상에서 표시하게 하여 초기 검증과 재검증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Fraley et al., 2004). Fraley 등(2004)이 성인 애착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26편의 논문을 개관한 것에 의하면 유형의 동일성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은 9편이었고 나머지 17편은 시기에 따른 상호 상관을 검증한 것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연구들은 짧게는 일 주(Pistole, 1989)부터 길게는 31년에 걸쳐(Klohn & Bera, 1998) 재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초기 측정과 이후 측정간에 평균적인 상관 관계는 .54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생후 1년에서 19세까지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추정한 .39의 지수보다 높은 편이다. 애착의 측정을 연속적 지수가 아닌 범주로 분류하여 측정한 연구들에서 초기 측정과 이후 측정 모두에서 동일한 애착 범주를 보인 비율은 43%(Baldwin, Fehr, Keedian, Seidel, & Thomson, 1993)부터 80%(Keelan, Dion, & Dion, 1994)까지 나타나고 있다.

Fraley 등(2004)이 개관한 연구 중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avila 등(Davila et al., 1997)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6개월과 2년 뒤의 변화를 측정했을 때 6개월 시점에서는 72%가, 2년 뒤에는 66%가 동일한 유형을 보고하였고,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Lopez 등의 연구(2002)에서 6개월 후에 이들의 애착 유형을 측정했을 때 전체 집단의 57%만이 동일한 유형을 보고하였다. Sharfe 등(1994)은 8개월에 걸쳐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의 안정성을 자기보고식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안정형은 .53, 거부형은 .45, 몰두형은 .56, 두려움형은 .58의 상관을 나타냈고, 동일한 대상을 반구조화된 애착 면접으로 측정했을 때 여학생은 .64, 남학생은 .73의 상관을 보였다. 31년에 걸쳐 회피 애착 유형과 안정된 애착 유형을 보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Klohnen 등의 연구(1998)에서는 21세에 최초의 측정이 이루어진 이래 이들이 27세, 43세, 그리고 52세가 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애착 유형 뿐 아니라 성격 특성이나 생활과정에서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회피적인 애착 특성을 보이는 여성들은 안정된 유형의 여성보다 덜 행복하고 안정되지 못한 특성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 거리감을 더 느끼고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며,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연대를 맺을 기회를 덜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의 안정성을 개인 내적인 발달 측면에서 살펴본 Zhang 등의 연구(2004)는 15살부터 87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6년의 기간동안 애착의 안정성을 세 차례의 걸쳐 측정하였다. 그 결과 최초 측정 시기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애착 유형별 상호 상관은 안정형 .45, 거부형 .41, 몰두형 .40, 거부형 .49로 나타났고, 6년이 경과한 세 번째 측정에서는 두 번째의 측정보다 낮은 상관인 안정형 .35, 거부형 .32, 몰두형 .20, 그리고 두려움형은 .44의 지수를 보였다. 또한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애착 변화를 추적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 안정형과 거부형의 비율은 높아지고, 몰두형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인기 애착은 안정된 측면도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인

애착의 안정성과 가변성에 대해 Davila 등(2004)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생활-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스트레스들은 애착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특별히 부정적인 생활 경험이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안정된 패턴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정한 패턴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인지' 관점에서 애착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성인기에 측정 시기에 따라 애착의 패턴이 변화되는 것은 한 개인이 즉각적으로 떠올리면서 접근 가능한 애착 대상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기에는 애착의 대상이 부모 이외에도 친구나 연인, 배우자 등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애착의 대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표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애착의 패턴이 시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의 가능성은 '개인차'에 근거한 것으로 어린 시절 제대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외상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으로 애착 대상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에 비해 애착 패턴이 불안정하여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Davila 등의 설명 이외에도 성인 애착 측정 도구의 문제나 인간 발달 과정의 관점에서 애착 패턴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애착 패턴은 아동기의 애착 유형을 그대로 계승한 Hazan 등(1987)의 세 가지 유형으로의 분류나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네 가지 유형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두 방식은 나름대로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각 애착 유형을 주

관적으로 해석한 한 문장만으로 변별한다는 점에서 너무 단순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설문지간에 공통된 요인을 메타분석을 통해 찾아보려는 시도(Brennan, Clark, & Shaver, 1998)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성인 애착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만족 할만한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성인 애착 측정 도구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과 관련된 측정 오류는 실제 애착 패턴의 변화를 넘어 애착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발달적 관점에서 한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보다 통합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이러한 발달적인 특성은 일반 성인들의 애착 유형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10대 중반에서 80대 말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Zhang 등의 연구(2004)에서 입증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안정형과 거부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몰두형의 비율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몰두형의 비율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생애적 발달관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자녀의 분가나 배우자와의 사별 경험을 통해 좀더 자기 의존적이고 독립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해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 애착의 안정성과 가변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패턴이 하나의 특성이나 성격으로 통합되어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과업들, 예를 들면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를 위해 집을 떠나는 경우나 청소년기

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애 및 결혼 과정에서 직면하는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대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김광은, 2004; 김선희, 오경자, 박정규, 이은정, 2001; Lopez & Brennan, 2000; Lopez et al, 2002; Park, Crocker, & Mickelson, 2004; Perrine, 1999)에서 안정된 애착 유형이나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자신감이나 자존감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생활적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서도 보다 건설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개의 연구를 살펴보면 Lopez 등의 연구(2002)에서 집에서 떠나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을 조사하였을 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된 애착 유형을 나타낸 학생들은 일관되게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나타낸 학생보다 자신감 수준이 높고, 불편감을 덜 호소하며 자신의 문제를 덜 억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Perrine의 연구(1999)에서도 안정된 애착 유형의 신입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도 현격하게 낮았다. Zhang 등의 연구(2004)에서는 안정된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사람보다 방어적인 대처를 덜 하며, 우울 증상 점수는 더 낮은 반면 주관적인 안녕감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은의 연구(2004)에서 안정된 유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자신감 수준이 높고, 사회성, 자율성, 성취성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격 특성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스트레스에 직

면했을 때 회피보다는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김광은과 이위갑의 연구(2005)에서 안정된 애착 유형의 대학생들은 불안정한 대학생보다 연애관계에서 회피와 불안 점수가 낮았고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정미나의 연구(2003)연구에서 안정된 애착 유형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고 주변사람들과도 좀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혜선과 한종철의 연구(2004)에서도 안정된 유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학업, 사회, 개인 및 정서, 대학생생활 환경 면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인 애착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서구의 경우 성인 애착의 안정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검증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6개월의 기간동안 성인 애착이 어떠한 형태로 유지 또는 변화되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실제 성인 애착이 생활적응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안정된 성인 애착은 대인관계 영역뿐 아니라 학업이나 환경 적응 같은 총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사관생도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사관학교는 군대조직이면서 학교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고 생도들이 입교해서 생활하는 첫 일년은 가치, 규범, 생활 면에서 본격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김광은, 1998). 이러한 면에서 보면

사관학교의 첫 일년은 생도들에게 발달적인 면에서 집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조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환경적 변화 및 요구로 인해 애착 패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사관학교 환경의 또 다른 특성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생도들에게 거의 동일한 환경 조건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특히 입교 후 4개월간은 외부와의 실제적인 접촉이 차단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주말에만 외출이 가능하여 모든 피험자의 환경 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입교 초에 보이는 성인 애착의 특성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애착 특성이 실제 이들의 생활적응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애착의 안정성 및 기능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생도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과 관련된 응용적인 측면에서 흥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성인 애착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주는 Bartholomew 등의 척도(1991)이다. 이 척도는 이미 성인 애착의 안정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의 상호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 Hazan 등의 세 가지 유형의 분류보다 좀더 민감하게 애착유형을 구분해 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장희숙,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 분류 이외에 성인 애착의 구성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Feeney, Noller & Hanrahan(1994) 등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는 성인 애착을 자신감,

관계 몰두, 승인 욕구, 친밀감 불편, 성취를 위해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성인 애착을 설명한다. Feeney 등의 연구(1994)와 김광은의 연구(2004)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 유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자신감 요인의 점수가 높고 나머지 네 가지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불안정한 유형 중에서도 관계 몰두와 승인 욕구가 높은 것이 몰입형의 특징이라면 거부형은 친밀감 불편과 관계 부차적인 특성을 띠며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두려움형은 자신감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가적 척도의 사용은 네 가지 진술만으로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Bartholomew 등의 척도(1991)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방 법

대상 및 절차

충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K 사관학교 생도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표집은 정식으로 입교한지 한 달이 지난 4월에 실시되었으며 이때 참여한 인원은 총 163명이다. 당시 본 연구자의 주도하에 1학년 전체 생도를 대상으로 성인애착검사 및 생활적응 검사가 실시되었다. 2차 표집은 1차 표집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0월에 전체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155명이 참여하였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것은 145명의 반응인데, 이는 1, 2차 표집 중 어느 한 시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자료와 퇴교로 인해 자동 손실된 자료를 제외한 것이다. 본 조사에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도구

성인 애착 척도

성인 애착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것으로 Bartholomew 등(1991)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을 근거로 자기상과 타인상의 두 수준을 조합하여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관계 질문지(Relational Questionnaire)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두려움형의 애착 양식을 설명하는 네 개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 중에서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고르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광은(2004)이 관계질문지의 내용을 일차 번역하여 영문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두 명의 영문학자의 감수를 받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성인 애착의 요인 별 특성을 알아보는 검사로는 Feeney 등(1994)이 개발한 애착 질문지를 김광은(2004)이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Feeney 등(1994)이 개발한 애착 검사는 성인 애착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성인 애착을 다섯 개의 하위 요인- 자신감, 관계 몰두, 승인 욕구, 친밀함 불편, 관계 부차적-을 통해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착 관계를 알아보도록 진술된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6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Feeney 등의 연구(1994)에서 .67에서 .73로, 김광은의 연구(2004)에서는 .56에

서 .82로 나타났다.

생도생활적응검사

이 검사는 Baker와 Siryk(1984)이 만든 대학생 활적응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김광은(1998)이 생도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문항은 7점 척도의 리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9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요인별 내용을 보면 학업은 학업 태도, 학업 습관, 교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며, 내무는 생도 생활에 대한 태도, 규정, 중대 만족도를, 사회는 심리적 지지세력,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개인정서는 정서적 안정성, 심리적 독립성을, 애착은 사관학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소속감을 포함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인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1이다.

결과 및 해석

성인애착의 안정성

성인 애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별로 살

펴보았다. 다음 표 1은 성인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측정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먼저 애착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1차 측정에서 안정형은 전체의 64%였고, 몰두형이 18%, 거부형이 12%, 두려움형이 6%로 나타났다. 2차 측정에서는 안정형이 59%, 몰두형이 26%, 거부형이 9%, 두려움이 7%의 분포를 보였다. 1차와 2차 측정을 비교해 볼 때 안정형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고, 몰두형의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각 측정 시기별로 생도들의 안정된 애착 유형 비율은 일반 대학생들(김광은, 2004; 장휘숙, 1997; 정미나, 2003; Bartholomew et al.,1991; Feeney et al., 1994)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1,2 차 측정 모두에서 일관되게 안정된 애착을 나타낸 비율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형의 비율이 40%에서 50% 내외로 분포되는 일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인 애착 유형이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진한 숫자로 표시된 총 92 명의 반응으로 이는 전체 사례의 63%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율은 성인 애착 유형의 안정성을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측정한 Davila 등의 연구(1997)에서 나타난 72%에 비해서는 낮지만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간격

표 1. 성인 애착 유형의 측정 시기별 분포

측정시기 / 애착유형	2차(6개월 경과)				N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	
1차					
안정형	67	6	14	6	93
거부형	9	4	5		18
몰두형	8	1	17		26
두려움형	1	2	1	4	8
N	85	13	37	10	145

표 2. 성인 애착 요인의 시기별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증

애착요인 / 측정시기	1차		2차		T
	M	SD	M	SD	
자신감	33.56	4.87	33.60	5.45	- .12
관계몰두	28.37	5.40	27.49	4.41	2.25
승인욕구	24.01	4.26	23.38	3.72	1.98
친밀함불편	33.08	5.83	35.02	5.80	-4.15***
관계부차적	20.23	4.50	19.67	5.23	1.42

****p* < .001

을 두고 측정한 Lopez 등이 보고한(Lopez et al., 2002) 57%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다.

성인 애착 구성 요인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별 대응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 애착의 다섯 가지 요인 중 자신감, 관계 몰두, 승인 욕구, 관계 부차적인 네 가지 요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친밀감 불편 요인은 2차 측정 시기에 의미있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성인 애착의 다섯 가지 구성 요인 중 네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성인 애착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경향을 띤다고 추론할 수 있다. 친밀감 불편 요인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 현 자료만으로 추론하기 어려우나 이는 집단적인 생도생활의 대인관계 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기 생도생활 적응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4년간의 생도생활 동안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도들은 입교 초기보다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기생이나 선배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성인 애착의 안정성이 애착 유형 변화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라 애착 유형 집단을 네 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I: 67명)은 양 측정 모두에서 안정된 유형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집단(II: 26명)은 1차 측정에서는 안정된 반응을 보였으나 2차 측정에서는 세 개의 불안정한 유형으로 변화된 사람, 세 번째 집단(III: 18명)은 세 개의 불안정 유형에서 안정된 유형으로 변화된 사람, 네 번째 집단(IV: 34명)은 일관되게 불안정한 유형을 나타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집단별 애착 요인과 측정 시기에 따른 평균과 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고, 측정시기를 집단내 변인으로 하고 네 개의 집단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 애착 요인의 측정 시기별 차이는 전체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친밀함 불편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 애착의 다섯 가지 요인 모

표 3. 성인 애착 집단의 애착요인별 평균(표준편차)

집단	I		II		III		IV	
	(안정→안정)		(안정→불안정)		(불안정→안정)		(불안정→불안정)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자신감	35.14 (4.98)	35.58 (5.46)	34.26 (4.60)	32.50 (4.42)	32.61 (3.29)	33.88 (4.88)	30.41 (4.02)	30.41 (4.84)
관계물두	25.61 (3.73)	26.17 (4.75)	27.30 (2.03)	29.57 (4.39)	30.08 (5.02)	28.61 (5.51)	30.08 (5.02)	31.67 (5.42)
승인욕구	22.20 (3.73)	22.55 (3.48)	23.61 (2.21)	24.38 (4.78)	24.66 (3.50)	24.83 (4.96)	24.85 (3.50)	26.17 (3.91)
친밀함불편	30.43 (5.56)	32.80 (5.61)	33.11 (4.51)	35.84 (5.53)	35.33 (4.87)	36.27 (5.48)	37.11 (5.02)	38.05 (4.94)
관계부차적	17.59 (4.93)	18.71 (4.70)	20.84 (3.96)	21.50 (3.80)	24.00 (6.28)	21.38 (4.75)	20.58 (4.20)	21.64 (3.59)

표 4. 성인 애착 요인과 측정시기 및 집단간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

애착요인/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Sheffe
자신감	시기	.00	1	.00	.00	
	집단	1115.73	3	371.91	9.58***	I (1), II(1)>IV(1), I (2)>IV(2)
관계물두	시기	35.78	1	35.78	3.31	
	집단	1223.71	3	407.90	13.68***	I (1), II(1)<III(1), IV(1), I (2)<II(2), IV(2)
승인욕구	시기	24.78	1	24.78	3.36	
	집단	501.57	3	167.19	7.69***	I (1)<IV(1), I (2)>IV(2)
친밀함불편	시기	178.50	1	178.50	11.38***	
	집단	1764.41	3	588.131	14.45***	I (1)<III(1),IV(1), II(1<IV(1) I (2)<IV(2)
관계부차적	시기	.17	1	.17	.01	
	집단	872.56	3	290.85	9.36***	I (1)<II(1), III(1), IV(1) I (2)<IV(2)

*** $p < .001$.

I(안정→안정), II(안정→불안정), III(불안정→안정), IV(불안정→불안정), ()는 측정시기

두에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보였다. 첫째, 측정 시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안정된 패턴을 보인 집단 I의 반응은 일관되

게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보인 집단IV에 비해 자신감 요인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높고, 나머지 네 개의 요인의 점수는 의미 있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선행 연구들(김광은, 2004, Feeney et al., 1994)에서처럼 성인 애착의 안정된 유형과 불안정한 유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애착 유형이 변화된 집단은 일관성 있는 집단에 비해 그 특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1차 측정시 안정형이었다가 2차 측정 시 불안정한 형으로 변화된 집단 II의 경우, 첫 번째 측정에서 자신감, 관계몰두, 친밀감 불편 요인의 점수는 안정형의 특성을 보여주나 2차 측정에서는 관계 몰두 요인을 제외하고는 불안정형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안정한 유형에서 안정형으로 변화된 집단 III의 경우도 1차 측정 시에는 자신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불안정한 유형의 특성을 나타냈으나 2차 측정에서는 특이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성인 애착이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각 유형의 전형적 특성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인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된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인 애착은 환경적인 적응 요구가 많은 초기 6개월간의 생도생활에서 성인 애착 유형이나 요인 면에서 어느 정도 (moderately) 안정된 경향을 보이며 성인 애착의 유형별 특성은 6개월 동안 동일한 패턴을 보인 사람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6개월에 걸쳐 일관되게 안정된 애착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보다 자신감이 높고, 관계몰두, 승인 욕구, 친밀함 불편, 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애착의 속성은 낮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시간적 흐름에 상관없이 성인 애착의 안

정된 패턴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성인 애착과 생도생활적응

성인 애착과 초기 생도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 애착 요인과 생활 적응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와 2차 측정에서 애착 요인과 생활 적응 요인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요인에서는 상관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높아지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계수의 변화가 6개월 동안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 변화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김광은, 2004; 김선희 등, 2001; Feeney et al., 1994; Lopez et al., 2000)에서처럼 안정된 애착의 전형적 특성인 자신감 요인은 1, 2차 측정시기 모두에서 학업을 비롯한 전 생도 생활 적응 요인에서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이러한 상관 계수는 사회적 적응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 특성과 관련 있는 관계 몰두, 승인 욕구, 친밀감불편, 관계 부차적인 요인은 대체적으로 생도생활 적응 요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사회와 개인정서 요인과의 부적인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개월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애착 유형의 변화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 집단과 생활 적응 요인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시기를 집단내 변인으로 하고 네 개의 집단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여 반복

표 5. 성인 애착 요인과 생활적응 요인과의 상관관계

적응/ 요인	애착요인 측정시기	자신감	관계몰두	승인욕구	친밀함불편	관계부차적
학업	1차	.37**	-.17	-.26*	-.12	.22*
	2차	.21*	.02	-.07	-.06	-.12
내무	1차	.40**	-.07	-.17	-.22*	-.19
	2차	.36**	-.13	.06	-.15	-.28**
사회	1차	.75**	-.49**	-.56**	-.57**	-.54**
	2차	.69**	-.38**	-.30**	-.53**	-.45**
개인정서	1차	.31**	-.28**	-.38**	-.30**	-.33**
	2차	.28**	-.37**	-.25*	-.36**	-.37**
애착	1차	.23*	.03	-.11	-.13	-.20
	2차	.12	-.11	.05	-.13	-.27*

** $p < .01$., * $p < .05$.

측정 다변량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생활적응 요인은 시기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1차 측정 시기보다 2차 측정 시기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도들의 생활적응 과정을 1년 동안 추적한 김광은의 연구(1998)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생도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생활적응 지표는 1년의 기간 중 학기 초에 가장 높고 1학기말에 급격하게 낮아지다가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회복되는 V형의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학교 장면에 대한 기대가 입학 후 급격히 사라지는 '신입생 신화'(Baker, McNeil & Siryk, 1985)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도 생활의 초기 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과업이 너무 과중하여 이로 인한 불편감 및 스트레스를 반영한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측정 시기별 효과가 모든 생활적응 요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데 비해, 애착 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사회'

요인 [$F(3, 141)=8.54, p<.001$] 이었고, 학업을 비롯한 내무, 개인정서, 애착 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측정 시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안정된 패턴을 보인 집단 I의 점수는 일관되게 불안정한 패턴을 보인 집단IV의 점수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1차: 집단 I-집단IV=7.08, $p<.05$, 2차: 집단 I-집단IV=9.38, $p<.05$].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안정된 애착 유형은 인간 관계 면에서 어려움이 적고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 역시 높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안정된 성인 애착이 사회 적응을 포함하여 학업이나 개인정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으로 상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양혜선 등, 2004)에 비추어 볼 때 애착과 적응간의 제한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자료만으로 이러한 반응의 원인을 추론하기는 어려우나, 사관

표 6. 성인 애착 집단의 생활 적응 요인 및 측정 시기별 평균(표준편차)

집단	I (안정→안정)		II (안정→불안정)		III (불안정→안정)		IV (불안정→불안정)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학업	82.92 (11.83)	80.59 (12.71)	85.07 (7.56)	81.69 (14.26)	84.33 (12.72)	83.88 (14.45)	82.73 (8.80)	78.38 (12.92)
내무	116.43 (14.96)	113.19 (20.71)	118.07 (12.65)	110.73 (17.07)	115.11 (15.02)	112.94 (10.76)	116.76 (11.53)	107.00 (15.84)
사회	71.55 (9.31)	69.38 (10.06)	69.92 (9.80)	66.80 (8.26)	65.66 (5.52)	64.22 (8.58)	64.47 (8.82)	60.00 (10.09)
개인정서	83.14 (12.62)	82.34 (14.48)	80.88 (12.05)	78.76 (14.15)	79.72 (10.28)	77.00 (12.91)	83.17 (9.87)	75.97 (12.91)
애착	50.23 (8.27)	47.13 (9.00)	49.88 (9.27)	46.73 (9.27)	48.66 (8.30)	47.27 (7.72)	50.70 (7.14)	44.73 (9.84)

학교의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성인 애착과 같이 인간관계에 관련된 요인 이외에 입교 동기나 체력과 같은 요인이 생활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윤유경, 2000)가 있다. 따라서 사관학교 적응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인들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생도들의 성인 애착과 생활 적응의 여러 측면과의 관련성을 낮추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교육환경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을 설정하여 상호 비교하는 추후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논 의

지금까지 성인 애착 안정성과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6개월에 걸쳐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성인 애착은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측정에서 그 유형이나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성인 애착의 자신감 요인은 생

활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고, 일관성있게 안정적인 애착 유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 결과가 성인 애착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 애착의 개념을 대상이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경향을 보이는 일종의 성격 특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안정형이던 불안정형이던 간에 6개월 동안 동일한 애착 유형을 나타낸 사람들은 애착의 내용적 측면이나 생활 적응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일관된 반응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안정된 애착 유형은 자신감 수준이 높으며 대인관계의 의존과 독립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비해, 불안정한 유형은 이와 대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애착의 개념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성격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성을 사전에 개념화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비롯한 많은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 애착을 구성하는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신감’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신감 이외에 자아정체성 (Kennedy, 1999), 자존감(김선희 등, 2001; 장휘숙, 1997; Feeney et al., 1994) 등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이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인 애착의 요인 중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과 관련된 관계 몰두, 승인 욕구, 친밀함 불편, 관계 부차적인 요인은 자신감에 비해 생활 적응과 요인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 특성은 남들과의 관계에 앞서 자신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론적인 면에서 성인 애착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기본 기제로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성인 애착의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인 맥락인 것 같다. 아직 성인 애착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인과적 모델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애착은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성과 심리적 안정성이나 독립성과 관련 있는 정서적인 측면과 더 많은 관련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인 애착 연구 과제 중의 하나는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성인

애착의 개념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행동이나 장면을 구체화하고 정교화 하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시간적 흐름이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애착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를 규명할 개인 내적 변인이나 환경적 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애착의 안정과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 역사와 애착 표상을 비롯한 내적 특징들과 스트레스 원천이나 강도 등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요인들을 첨가하여 애착 패턴의 안정성 및 가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애착유형별 특성이 탐색되지 못했다. 즉 불안정한 애착 유형은 몰입, 거부, 두려움의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실제 분석은 세 개의 유형을 불안정한 애착 집단으로 묶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까닭은 두 번의 측정에서 일관되게 또는 변화한 세 개의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사례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많은 사례를 표집하여 불안정한 애착 유형 간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 집단과 불안정 집단간에 생활 적응상의 차이는 ‘사회’요인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애착의 개념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영역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인지 아니면 생도생활의 특성상 애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적응의 영역이 제한 되서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과 적응의 여러 측면에 관한 검증

이 좀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가치나 생활 규범 뿐 아니라 생활환경이 다른 여러 장면에서 애착과 적응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애착의 안정성과 가변성이 실제의 변화에 의한 것보다 측정도구의 오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자기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직 국내에서 이들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법 이외에 전문가에 의한 면접이나 이들의 애착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부여하여 좀더 객관적으로 성인 애착의 유형이나 요인들이 측정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애착 척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표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성인기 애착의 안정성을 살펴보기에 6개월의 기간은 너무 짧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최소 30년 이상 지속되는 성인기 동안의 애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화는 여러 애착 패턴을 비교하는 집단간의 차이 뿐 아니라 한 개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도 동시에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은 (1998). 남녀생도 생활적응과정 연구: 입교 후 1년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3(1), 148-160.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6(1), 53-69.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25-239.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양혜선, 한종철 (2004). 성인애착 유형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5-396.

윤유경 (2000). 생도의 학년별 적응과정 연구 (KAFA00-3-2-12). 공군사관학교 국고지원과제 보고서. 공군사관학교.

장휘숙 (1997).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정미나 (2004). 성인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ker, R. W., & St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81-189.

Baker, R. W., McNeil, O. V., & St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3-103.

Baldwin, M. W., Fehr, B., Keedian, E., Seidel, M., & Thomson, D. W. (1993).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schemata underlying attachment styles: Self-report and lexical decision approaches.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Bulletin*, 19, 46-754.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pp.3-28). NY; The Guilford Pres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Basic Books.
- Buelow, G., McClain, M., & McIntosh, I. (1996). A new measure for an important construct: The attachment and object relations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604-623.
- Davila, J., Burge, D., & Hammen, C. (1997). Why does attachment styl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826-838.
- Davila, J., & Cobb, R. J. (2004). Predictors of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during adulthood. In Rholes, W. S. & J. A. Simpson(Eds.), *Adult attachment*(pp133-156). NY: The Guilford Press.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pp. 128-154). NY: The Guilford Press.
- Fraley, R. C. (2002). Attachment stabi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Meta-analysis and dynamic modeling of developmental mech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123-151.
- Fraley, R. C., & Brumbaugh, C. C. (2004). A dynamical systems approach to conceptualizing and studying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In Rholes, W.S. & J. A. Simpson(Eds.), *Adult attachment*(pp86-132). NY: The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eelan, J., Dion, K. L., & Dion, K. K. (1984). Attachment style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s among young adults: A short-term panel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01-214.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style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students. *College Students Journal*, 33(2), 171-80.
- Klohnen, E. C., & Bera, S. (1998). Behavioral and experiential patterns of avoidantly and securely attached women across adulthood: A 31-year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11-223..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47(3), 283-300.
- Lopez, F. G., & Gormely, B. (2002). Stability and changes in adult attachment styles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 to self-

- 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 *Journal of Counseling*, 47(3), 283-300.
- Park, L. E., Crocker, J., & Mickelson, K. D. (2004). Attachment styles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0), 1243-1254.
- Perrine, Rose M. (1999). Stress and college persistence as a function of attachment style. *Journal of the First-year experience & Students in Transition*, 11(1), 25-38.
- Pistole, M. C. (1989). Attach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Style of conflict resolu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505-510.
- Scharfe, E., & Bartholomew, K. (1995).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s*, 1, 23-43.
- Zhang, F., Labouvie-vief, G. (2004). Stability and fluctuation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a 6-year peri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419-437.
- 원고접수일 : 2004.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8
게재결정일 : 2005. 5. 6

Stability in Adult Attachment and Its Relation With Cadet's Early Phase Adaptation

Kwang 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is study explored stability in adult attachment and its relation with life adaptation over six months. 145 cade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was carried two times with six months interval, using the Relational Questionnaire(RQ), the Adult Attachment Scale(AAS) and the Cadets Adjustment to Academy(CAA). Results indicated that 63% of the cadets showed no difference in the adult attachment styles of the RQ and their responses in the adult attachment factors of the AAS were moderately stable after the six months. The confidence factor of the AA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co-relations with the all factors of the CAA. In the two measurements, the secure attachment group showed a higher score in social adaptation than the insecure group. In the conclu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future adult attachment studies.

Key Words : Stability in Adult attachment, Adaptation in Academy